

## 대한민국 CleanSYS UN공공행정상 출품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은 올해로 6 회째를 맞는 UN 공공행정상에 대한민국 환경 대표브랜드인 CleanSYS를 지난달 14일 출품했다. UN공공행정상은 UN총회의 결의와 경제이사회(DESA)의 결정으로 2000년에 신설되어 2003년부터 매년 6월 23일 '유엔 공공행정의 날'에 각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다.

유엔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세계 공공기관 및 일반인에게 알리고 세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행정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매년 6월 23일을 '공공행정의 날(UN Public Service Day)'로 지정하여, 시상과 함께 각종 행사들을 통해 각국 공공행정기관의 노력이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고 있다.

CleanSYS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원격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기업체의 생산원가절감 및 사회적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효과가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으며,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21% 이상 저감하고 사업장 주변지역의 대기질을 50~80% 개선하는 등 환경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유엔공공행정상 출품을 통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대기환경질의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여 관련 산업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홍보 강화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

###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 란?

CleanSYS제도는 1986년에 울산·온산지역을 대상으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전문기관 부재, 기술력 부족, 데이터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사실상 실패한 적이 있었으나, 환경부에서는 환경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공동으로 1997년에 여천지역을 대상으로 제도의 도입을 다시 시작하여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5년여의 기간이 지난 2002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국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이룩한 사업이다. 굴뚝원격감시체계 CleanSYS는 세계최고의 IT와 ET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으로서 전국 어느 장소에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확인과 관리가 가능한 세계 최초·최고의 시스템으로 평가 받기에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 중 하나이다.

### '유엔(UN) 공공행정상(PSA)' 수상의 의미는?

유엔(UN) PSA에 선정된 주요정책이나 우수사례는 UN의 공인 및 지원을 통해 각국에 우선적으로 확산 보급된다. 유엔(UN) PSA 수상작은 동남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우선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제적 브랜드로 부상된다. 국내에서도 혁신 성과를 가장 성공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상 사례로 공인하고 있다.